



대입뉴스

2022학년도 수시
지원횟수 결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정보 활용하기 1

2022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일정



대입정보 활용하기 2

2022학년도 정시모집
면접 일정



대입정보 활용하기 3

[어디가TV]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대입 주요 변경사항





연관 홈페이지



[대입뉴스](#) |
 [대입정보 활용하기](#) |
 [언공 클라클라](#) |
 [선생님 칼럼](#) |
 [어디가 활용수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가산동 543-1) 대성다플리스 A동 23층 TEL.02-6919-3855
 Copyright 2015. KCUE all rights reserved.

adiga
 대입정보포털어디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22학년도 수시 지원횟수 결과(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교협이 올해 수시모집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지원 건수는 219만 9,964건이었고,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지원 횟수는 0.07회 증가한 4.80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회 초과 지원 위반자 342명에 대해 사전 예방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학년도	지원인원	지원건수	1인당 평균 지원횟수	위반 사전 예방자
2022	458,723명	2,199,964건	4.80회	342명
2021	448,678명	2,121,694건	4.73회	337명
증감 (전년대비 %)	+10,045명 (2.24% 증가)	+78,270건 (3.69% 증가)	+0.07회 (1.48% 증가)	+5명 (1.48% 증가)

[표] 전년대비 수시모집 지원 관련 증감 현황

□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원서부터 접수가 취소(접수 시간 순으로 일곱 번째 원서부터 무효)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입학 전형을 밟게 되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단, 산업대, 전문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부모 모두가 외국인(순수 외국인)인 전형은 지원 횟수 집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교협은 수험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보호하고 대입전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수시모집을 실시한 208개 대학(캠퍼스 포함)의 지원 자료를 수합하여 총 지원자 45만 8,723명 중 342명의 지원 횟수 6회 초과자를 사전에 검출하고, 해당 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지원 횟수 초과 수험생에게 확인 후 접수 취소하도록 안내했다.

□ 대교협은 앞으로 시행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대해서도 위반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입지원방법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 대교협 관계자는 수험생 스스로 수시모집 합격 후에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 정시모집 동일 군 복수 지원, 정시모집 등록 후 추가모집 지원, 이중등록 등의 대입지원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원과 등록 과정에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험생의 대학 지원 현황 및 대입지원 위반 여부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조회 방법 : 대입정보포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 [대입원서 지원정보]에서 수험생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비실시간 정보제공)
- 조회 내용 : 수시, 정시, 추가모집 지원 내역 조회(수시모집 지원내역은 일반대만 해당), 대입지원방법 위반 여부 조회



[그림] 대입지원 현황 및 위반 정보 조회 방법

2022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일정

2022학년도 정시모집의 원서접수는 거의 모든 대학교가 1월 3일(월요일)에 마감을 한다. 하지만 일부 대학교의 경우 그 이전에 마감하는 곳도 있으며, 대학에 따라서 마감시간이 다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마감일 뿐만 아니라 마감시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유의사항

- 이 자료는 각 대학에서 2021년 9월 1일 발표한 <각 대학 정시모집 요강>에 근거하여 제작됨.
- 추후에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서 접수전 반드시 대학별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함.

원서접수 마감 일정

지역	일정	요일	시간	대학교
서울	1월 1일	토	17시	연세대
			18시	서울대
	1월 3일	월	16시	한국체육대
			17시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경대, 서울기독대, 성균관대
			18시	건국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서울한영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이화여대, 장로회신대, 중앙대, 총신대, 추계예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
			19시	케이씨대
			20시	감리교신학대
경기	1월 3일	월	16시	중앙승가대, 칼빈대
			17시	가톨릭대, 경기대, 단국대, 루터대, 수원가톨릭대, 아신대, 아주대, 한양대(에리카)
			18시	가천대, 강남대, 경희대(국제), 대진대, 명지대(용인),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성결대, 수원대, 안양대, 용인대, 을지대, 중앙대(안성), 차의과학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글로벌),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 협성대
			19시	신경대
			24시	신한대
	1월 1일	토	18시	경인교대

인천	1월 3일	월	17시	인천대
			18시	인천가톨릭대, 인하대
강원	1월 3일	토	17시	춘천교대
			18시	가톨릭관동대, 강원대(춘천, 삼척), 연세대(미래)
			20시	강릉원주대, 상지대, 한림대
			22시	한라대
			24시	경동대
대전	1월 3일	월	17시	한국침례대
			17:30	대전신학대
			18시	을지대, 충남대, 한밭대
			19시	우송대, 한남대
			20시	대전대, 목원대
대전	1월 3일	월	21시	배재대
세종	1월 3일	월	17시	대전가톨릭대
			18시	고려대(세종), 홍익대(세종)
충북	1월 2일	일	18시	청주교대
	1월 3일	월	18시	건국대(글로벌), 중원대, 청주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19시	충북대
			20시	극동대
			21시	가톨릭꽃동네대, 세명대
			22시	서원대
			23:59	유원대
충남	1월 3일	월	17시	단국대(천안)
			18시	공주교대, 공주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백석대, 상명대(천안), 선문대, 순천향대, 한서대, 호서대
			19시	건양대, 청운대, 한국기술교육대

			20시	금강대, 중부대
대구	1월 3일	월	18시	경북대, 계명대, 대구교대
경북	1월 3일	월	17시	영남신학대, 위덕대
			18시	경운대, 경일대, 경주대, 금오공대, 김천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구한의대, 대신대, 동국대(경주), 안동대, 영남대, 한동대
			20시	동양대
부산	1월 3일	월	17시	부산교대
			18시	경성대, 고신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신라대, 한국해양대
울산	1월 3일	월	18시	울산대
경남	1월 3일	월	17시	진주교대, 한국국제대
			18시	가야대, 경남대, 영산대, 인제대, 창신대, 창원대
			19시	경상국립대
			21시	부산장신대
광주	1월 3일	월	17시	광주교대, 호남신학대
			18시	광신대, 광주대, 남부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19시	송원대
			20시	광주여대
전북	1월 3일	월	17시	예수대, 전주교대, 한일장신대
			18시	예원예술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호원대
			20시	군산대, 우석대
전남	1월 3일	월	17시	광주가톨릭대
			17:30	영산선학대
			18시	동신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세한대, 순천대, 전남대(여수), 초당대
제주	1월 3일	월	18시	제주국제대, 제주대

2022학년도 정시모집 면접 일정

유의사항

- 이 자료는 각 대학에서 2021년 9월 1일 발표한 <각 대학 정시모집 요강>에 근거하여 제작됨.
- 추후 수정 변경되는 내용은 반드시 대학별 발표 자료를 확인해야 함.

대학별 면접 일정

지역	시작일정	요일	종료일정	요일	대학교(전형 또는 학과)
서울	1/8	토			성균관대(일반-의예)
	1/9	일			서울과기대(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1/10	월			가톨릭대(성신특별전형)
	1/10	월	1/11	월	국민대(가군 조형대학 실기전형 2단계)
	1/11	화			고려대(일반전형-사이버국방학과)
	1/12	수			삼육대(신학특별), 총신대(CS인재)
	1/13	목			고려대(일반-의과,간호/기회균등-농어촌,사회배려,특성화), 국민대(가군 농어촌), 한국체대
	1/14	금			서울대(사범대학)
	1/15	토			서울대(의과, 치의학대학원, 수의대), 숭실대(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1/16	일			명지대(성인학습자,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1/18	화			서울대(일반-미술대학, 기회균형-음악대학)
	1/19	수			서울대(일반-미술대학, 기회균형-미술대학)
	1/20	목			서울기독대(일반, SCU인재), 장로회신학대(일반), 서울대(일반-미술대학,기회균형-미술대학)
서울	1/21	금			국민대(나군 농어촌), 상명대(국가안보학), 서울교대(일반) 서울대(기회균형2), 케이씨대(일반)
	1/22	토	1/29	토	동덕여대(특성화고등고졸재직자)
	1/23	일			국민대(다군 농어촌, 취업자, 재직자)
	1/24	월			한국성서대(일반학생)
	1/25	화			서울기독대(일반, SCU인재), 서울한영대(일반)

	1/26	수			케이씨대(일반학생)
	1월중(미정)				세종대(국방시스템공학, 항공시스템공학)
경기	1/7	금			한신대(일반학생-신학부)
	1/11	화			서울신학대(기독교전형)
경기	1/13	목			아주대(일반전형1-의학과, 농어촌-의학과), 중부대(사범계), 한세대(일반, 농어촌, 특수교육대상자)
	1/18	화			용인대(장애인등대상자)
	1/19	수			안양대(일반나군), 중앙승가대(대학독자적)
	1/20	목			아신대(일반, 기독교학생, 성경지식우수자)
	1/24	월			아주대(국방IT우수인재)
	1/25	화			경기대(일반-유아교육)
	1/26	수			아주대(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1/27	목			신경대(일반-간호, 정원외-간호, 전공우수자-스포츠레저), 아주대(일반전형3-약학과, 정원외-약학과)
	1/28	금	1/29	토	한양대(에리카)(조기취업형계약학과)
	1월중(미정)				한국산업기술대(조기취업형계약학과)
인천	1/21	금			경인교대(일반학생, 만학도, 저소득층)
강원	1/11	화			강원대(평생학습자, 재직자)
	1/20	목			강원대(사범대학)
	1/21	금			가톨릭과동대(일반-의예과, 성인학습자, 선취업후진학자)
	1/25	화			가톨릭관동대(수능-항공운항학과)
대전	1/12	수			대전대(군사학과)
	1/13	목			배재대(체육특기자), 충남대(국가안보융합-국토안보학)
	1/18	화			충남대(사범대학)
	1/21	금			한밭대(평생학습자, 재직자, 산업체경력)
	1/24	월			한국침례신학대(기독교인)
	1/25	화			대전신학대(대학독자적)
	1월중(미정)				충남대(국가안보융합-해양안보학)
세종	1/6	목			대전가톨릭대(일반, 성요셉)

충북	1/12	수			청주대(군사학과)
	1/13	목			중원대(일반전형2 가군)
	1/14	금			청주대(일반전형-국어교육,수학교육)
	1/18	화			세명대(일반-항공서비스학과)
	1/18	화	1/24	월	세명대(특수교육대상자)
	1/20	목			청주교대(일반,특별)
	1/21	금			극동대(일반학생)
	1/24	월			서원대(일반-사범대학)
충남	1/10	월			건양대(군사학과)
	1/13	목			청운대(일반-항공서비스경영, 사회서비스대학(야간))
	1/14	금			공주대(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1/17	월			공주대(일반-사범대학)
	1/19	수			백석대(일반-항공서비스)
	1/20	목			공주교대(일반,특별)
	1/22	토			한서대(일반-항공관광학과)
대구	1/14	금			경북대(특성화고졸재직자)
	1/20	목			대구교대(일반)
경북	1/6	목			경일대(면접 가군-항공서비스학)
	1/8	토			경일대(성인학습자,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1/10	월			금오공대(만학도), 대구예술대(장애인등대상자)
	1/10	월	1/24	월	대구예술대(일반)
	1/11	화			경주대(면접), 금오공대(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1/12	수			영남대(군사학과)
	1/13	목			영남신학대(담임목사추천자,만학도)
	1/14	금			경북대(특성화고졸재직자)
	1/17	월			대구예술대(장애인등대상자)
	1/18	화	1/21	금	경일대(조기취업형계약학과)
	1/24	월			대구예술대(일반, 농어촌, 장애인등대상자), 대신대(일반, 대학독자적)

	1월중(미정)				영남대(항공운송학)
부산	1/7	금			고신대(일반-국제문화선교학과)
	1/8	토			인제대(수능전형-의예과)
	1/14	금			고신대(일반-신학과)
	1/15	토			동의대(재직자, 조기취업형계약학과)
	1/17	월			부산교대(일반, 농어촌, 저소득층, 장애인등대상자)
	1/22	토			동명대(군사학과)
	1/25	화			고신대(일반-기독교교육, 유아교육)
울산	1/8	토			울산대(가군-의예과)
경남	1/12	수			경남대(군사학과), 부산장신대(일반, 추천제)
	1/13	목			창신대(일반-간호학과)
	1/19	수			진주교대(일반학생)
광주	1/11	화			호남신학대(일반학생, 목회자추천)
	1/19	수			조선대(일반-사범대학, 실기-음악교육과)
전북	1/10	월	1/12	수	원광대(군사학과)
	1/11	화			전주대(일반학생)
	1/14	금			한일장신대(일반학생, 농어촌, 특수교육대상자)
	1/15	토	1/16	일	호원대(일반)
	1/20	목			전주교대(일반학생, 농어촌, 기회균형, 장애인등대상자)
	1/22	토	1/24	월	군산대(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전남	1/28	금			영산선학대(영산선학대학교인재)

[어디가TV]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대입 주요 변경 사항



[대입정보 119] 2.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이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나눔에 지향

대학어디가TV 대입정보119



조국희 선생님

2023학년도 대입정보119 #2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이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어디가TV
#2023학년도 #대입정보119

다음에서 보기: YouTube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 Association of Universities



"도시계획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분야는 부동산 문제의 해결 및 유효한 이용을 모색하며,
법, 정책, 경제, 경영, 지리학 등을 종합하여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부동산 기초 및 응용분야, 부동산법, 세법, 도시지역학, 지리학,
부동산정책, 중개 및 마케팅·관리·평가 및 상담 등이 있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학과, 전공 선택 이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구글 어스 프로그램으로 도시들의 위성 사진을 보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각 도시마다 도로가 뻗어 나가는 방식과 건축물 모양의 차이점이 흥미를 유발하였습니다. 중학생 때는 단순히 지도를 보는 것을 넘어 부동산이라는 흥미가 더해졌습니다. 그 무렵부터는 국내 지도를 보며 주택의 시세를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고1 때부터 진로를 부동산학과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3 당시 부동산학과에서 배우는 것을 찾아보며, '취미로 부동산지식을 찾아보는 것은 좋은데 내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면 재미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향은 자유롭고 도전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공부는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일도 회계업무나 재무 관리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지리에 관심이 있고, 부동산과 관련된 도시 사회문제 해결을 좋아하는 점을 고려한 결과 도시계획으로 최종적인 학과 선택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방법

먼저 저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스스로에게 학과 선택에 있어 확신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나 도시계획에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와 전문가의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직업 선택 계기, 이 일을 하면서 부딪혔던 점, 멘토의 직업 가치관에 관하여 직접 물어볼 수 있었다면 학과 선택에 있어서 좀 더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께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멘토링 인터뷰 참고 사이트로 '휴먼네트워크', '잇다', '달팽이', '삼성멘토링' 등이 있습니다. 수험생분들이 가고자 하는 학과 및 원하는 진로를 가진 사람들과 직접 멘토링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대화해본다면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입학을 위해 자소서를 쓰는 수험생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입을 위해 자소서를 쓸

때, 우선 그 학교의 인재상을 읽어보고 나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 학과소개를 꼼꼼히 분석하여 저는 학생부종합 5개의 자소서에 공통가치를 찾아냈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자소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입 자소서를 쓰는 방법을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에 학생부종합 서류를 넣어 여러 장의 자소서를 써야 하는데 시간이 없을 경우 자신이 가고자 하는 학과들의 '공통 가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쓰되 끝마무리를 각 학과의 특색을 좀 더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면접 준비를 할 때, 매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원동기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꼭 나오는 질문이니 면접 보는 학과나 학교에 대해서 특색과 특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자기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입식 교육을 받는 사회이다 보니 정해진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방식이 훨씬 익숙합니다. 그러나 자소서와 면접 과정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남들과의 차별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저만의 생각, 가치관'을 자소서에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들을 나열하는 것은 올바른 자소서가 아닙니다. 활동한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한 것을 토대로 나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포인트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내신이 낮더라도 충분히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특장점) 및 대학(전공)생활

먼저,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는 2학년 때, 도시계획과 부동산으로 나뉘어 자신의 주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과 부동산은 관련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기업으로 취직하게 된다면 이력서에 도시계획 전공필수과목을 들은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기업으로 취직하게 된다면 부동산 전공필수과목을 들은 경험은 차별성은 물론이고 취직 분야와 세상을 보는 눈이 넓힐 것입니다. '부동산학과'의 아웃풋은 훌륭합니다. 매년 가장 불기 어려운 시험으로 꼽히는 감정평가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부동산학과로 유명한 대학 3곳 중 1곳입니다. 또한 몇 년 전에는 학교 내의 문과계열로서 취업률 2위도 하였고, 유지 취업률도 학교 내에서 뛰어난 편입니다.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될 만한 고등학교 교과목으로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과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지식을 습득할 때, 자신이 지역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지식을 받아들일 때 더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에 몰입하기가 쉽습니다. 세계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대학수업 때, 사례를 배우면서 공부할 때 더욱 흥미가 있고, 팀플이나 과제를 할 때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좀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추천도서는 유현준 교수님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공간이 만든 공간'입니다. 이 책을 읽고 도시공간에 대한 가치와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어떤 의미로 인식되는지, 주택공간의 올바른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자소서에 녹여낸다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 전과 후 '학교'의 의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원하는 학과에 와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세상에서 내가 못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험생이 유념해야 할 부분은 좋은 학교에 맹목적으로 모든 신경을 쓰기보다는 특히, 수시준비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해야 자기만의 차별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하고 싶은 일이 없고 목표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취직하거나 직업을 가지기 힘들니

다. 또한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그렸을 때, 어떠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그러한 인간관계가 자신의 성향상 잘 맞는지 성격을 고려해보는 것도 직업 선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도시재생과 관련된 대외활동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에서 꿈꿔왔던 것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은 공부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힘을 쓰고 힘들다는 느낌이 아닌, 힘이 샘솟고 내가 매우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험생분들도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자기 전 10분이나 잠깐 쉬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회계를 복수전공으로 한 경우에는 자산신탁회사, 부동산 펀드 관련된 회사 등 재무관리를 하는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주 전공으로 하고 도시계획기사를 자격증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이 캐드(CAD)나 스케치업(Sketch Up) 등 기본적인 기능을 좀 다룰 수 있다면 엔지니어링 회사 취업도 문과계열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의 경우 관련 공기업 취업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이 주 전공이라 해서 부동산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 주 전공이라 해서 도시계획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외활동 분야에서 부동산 앱 개발 아이디어 경진대회나 도시재생활동, 지역 공동체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스펙을 쌓는다면 이력서에 스토리텔링을 잘하여 전공을 넘어서 하고 싶은 직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홈페이지인 '휴먼네트워크'나 '잇다' 등을 통하여 수험생분들이 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주체적으로 습득하면,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의 목표를 생각하고 이 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온 사람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도 가고 싶은 학과 진로확신을 위해서 대학 생활의 목표를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공학"

안전공학

안전공학 분야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 확보와 기계의 변조·고장·부분손실 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방·보전의 처치를 실시하는 학문으로, 대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인명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해 작업 환경요인 및 위험요소를 파악,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노동 위험성 및 재해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건설·기계·전기·원자력 관련 안전관리, 위험성 및 안전성 평가, 신뢰성 공학, 산업재해분석 등이 있다.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학과(전공) 선택 이유

영화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 저는 재난 영화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재난 영화는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한 피해를 주는 자연·인적 재해를 모티브로 제작됩니다. 재난 영화는 영화를 보는 순간의 재미를 줄 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면 몇 년도에 제작된 것인지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대에 많은 피해를 낳은 사고나 이슈를 주제로 합니다. 또한 재난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들과 안전사고의 원인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갈수록 재난의 원인이 다양하고, 심화되는 영화를 보면서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영화를 통해 다양한 재난을 접하면서 작은 문제가 커다란 피해가 되는, 재난을 방지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 역시 산업재해 피해자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이지만 재난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느낀 당혹감과 무력함은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후에 후회하면 늦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안전공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준비방법

저는 수시 중 학생부종합전형을 주로 준비하여 수능보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에 열중했습니다. 면접은 친구들, 선생님과 모의 면접을 여러 번 해보면서 기본적인 인사나 자세가 몸에 익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일 경우 예상 질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긴장감을 줄이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접은 생활기록부 기반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 교과 등 학교마다 주제가 다양합니다. 자신이 지원하는 전형은 어떤 주제의 면접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 활동 중에서는 교내 또래 상담자 활동에 대해 면접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주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가 많기 때문에 사람 간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전공학과는 전국에 개설된 대학이 손에 꼽힐 정도로 최소한 학과여서 대입을 준비할 때 정보 부족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직접 안전공학과가 개설된 학교에서 개최하는 입시박람회에 참석하여 재학생들을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등은 신빙성이 낮은 자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과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시사 토론 동아리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안전은 전공과 관련된 이슈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동아리의 신문스크랩 활동이 면접 준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공적인 동아리 활동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교과 면접에서 시사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에 작성되어 증명될 수 있는 사례를 주제로 하는 것이 좋으며, 다른 사례들을 읽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문장을 따라 쓸 수도 있고, 과도한 미사여구를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쓰고 싶은 내용을 정하고 본인의 느낌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써보길 추천합니다.

학교(특장점) 및 대학(전공)생활

인천대학교는 인천 송도, 미추홀(사범대학)에 위치한 국립대학입니다. 평지의 넓은 캠퍼스와 사진을 찍지 않을 수 없는 풍경이 송도 캠퍼스의 특징입니다.

안전공학과는 공학 대학 소속이기 때문에 남학생 비율이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저희 학번의 경우에는 5:5의 비율로 입학하였고, 평균적으로 6:4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재료역학, 유체역학과 같은 5대 역학은 물론 안전 법규와 관련된 내용도 배우기 때문에 이과이지만 문과 같은 학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1학년 공학 대학 학생들은 선형대수학을(미적분 내용) 대학 수학으로 배우지만, 저희 과는 공업수학을 1학년 때 수강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난이도를 낮춰 설명해 주시긴 하지만, 미적분 과목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정한 추천도서는 없지만 융합과학처럼 인문학과 결합된 과학 분야의 도서를 추천합니다.

우리 학교는 전공을 산업안전, 에너지 및 환경안전, 재난 및 화재 안전으로 트랙을 나눕니다. 세부적으로 건설 안전, 화학 안전, 화재 안전을 중심으로 전공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트랙별로 개설된 전공과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공학과가 아닌 유사 학과로 방재공학과, 소방안전공학과, 화학안전공학과, 보건안전공학과 등이 개설된 학교들도 있습니다. 안전공학이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 중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과입니다. 하지만 안전공학은 다양한 분야의 기초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공학과는 건설, 원자력, 화재 등의 다양한 분야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서 특정 분야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분야는 건설 분야 안전관리자로 이외에도 제조업, 안전 관련 공기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 가능한 자격증 분야로 산업안전에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건설안전기사, 가스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및 환경안전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원자력기사, 원자력발전기술사가 있습니다. 재난 및 화재안전에는 방재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화재조사관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산업안전기사와 위험물 산업기사를 주로 취득하며 이외의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도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수님들이 운영하는 연구실은 화재, 건설, 방재 등의 분야가 있어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진로도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

인간은 자연 앞에서 무력하다고들 말하지만,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어도 피해를 줄이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이 계속됨에 따라 이제는 사람이 원인이거나 사람의 의해 증폭되는 인적,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인적 재난인 산업재해는 자연 재난에 비해 피해 범위가 넓고 원인도 복잡하며 실생활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산업 발전에 있어서 안전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은 의식주와 더불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보장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아직 진로가 고민이라면 안전공학과는 어떨까요?

정시모집 지원전략

김성길 교사(인천 연수여자고등학교)

가. 정시모집 일정

2022학년도 수능 시험일은 11월 셋째 주 11월 18일(목)이며, 수능 성적 결과는 수능 시험 후 22일 뒤인 12.10일(금)에 확인할 수 있다. 정시 원서접수 기간은 12월 30일(목)~1월 3일(월) 중 3일 이상 진행되며 가, 나, 다군 전형 기간은 8일이다. 대학별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2월 8일(화)까지이며,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3일 동안 정시 등록을 완료하면 된다.

정시 미등록 충원합격 통보 마감은 2월 20일(일)이고,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은 하루 뒤인 21일(월)까지이다. 2022학년도 추가모집 기간은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완료 후 2월 22일(화)~ 27일(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된다.

구 분		일 정
수능시험일		2021.11.18.(목)
성적 발표		2021.12.10.(금)
원서 접수		2021.12.30.(목) ~ 2022.1.3.(월) 중 3일 이상
전형 기간	가군	2022.1.6.(토) ~ 13.(목) (8일)
	나군	2022.1.14.(월) ~ 21.(화) (8일)
	다군	2022.1.22.(토) ~ 29.(토) (8일)
합격자 발표		2022.2.8.(화)까지
합격자 등록		2022.2.9.(수) ~ 11.(금) (3일)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022.2.20.(일) 21시까지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22.2.21.(월)
추가모집	접수·전형·합격통보마감	2022.2.22.(화) ~ 27.(일) 21시까지
	등록 기간	2022.2.28.(금)

나. 정시모집 인원 증가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은 84,175명으로 2021학년도에 비해 4,102명 증가했다. 반면 수시모집의 경우 4,996명이 감소했다. 2022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2021학년도에 비해 894명 줄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2 vs 2021 수시/정시 모집 인원 비교

구분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총 모집 인원
2022학년도	262,378명 (75.7%)	84,175명 (24.3%)	346,553명
2021학년도	267,374명 (77.0%)	80,073명 (23.0%)	347,447명
2020학년도	268,776명 (77.3%)	79,090명 (22.7%)	347,866명

2022학년도에 전체 대학 기준으로 정시 선발 비중은 1.3%p 증가했으나, 주요 15개교의 정시 선발 비율은 7.2%p 증가했다. 이는 전체 정시 비율인 24.3%에 비해 매우 큰 수치이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정시로 뽑는 인원은 4,223명으로 2021학년도에 비해 1,582명이 증가하였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정시 선발인원은 20,328명으로 2021학년도에 비해 4,132명이 증가하였다. 서울의 주요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첫째, 수시에만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시의 비중이 이제 학생부종합전형을 뛰어넘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울 주요 대학에 진학을 희망한다면, 학교 내신에 몰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능 준비에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둘째, 실제 정시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수시 이월 인원이 2021학년도와 유사할 것이라 가정할 경우, 실질적인(추가 모집인원을 적용한) 정시모집 비율이 46%가 넘는 학교도 있다. 즉, 서울 상위 15개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다. 정시모집군의 변화

2022학년도 정시 모집인원은 늘었고, 군별 학교 수도 나군 5개교, 다군 2개교가 늘었다. 2021학년도 모집 대학 수는 가나군이 비슷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나군의 모집 대학 수가 143개로 크게 늘었고, 다군 모집 대학 수는 124개로 소폭 증가했다. 군별 분할 모집이 지난해에 이어 확대되었다.

2022 vs 2021 모집군별 대학 수 비교

구분	수시 모집	정시 모집		
		가군	나군	다군
2022학년도	198개교	139개교	143개교	124개교
2021학년도	198개교	139개교	138개교	122개교

2022학년도 주요 대학의 모집군별 인원을 살펴보면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숙명여대는 가군 중심으로, 서울대, 서강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는 나군 중심으로, 홍익대는 다군에 모집인원이 집중되어 있다. 2021학년도와 비교하여 가군과 나군의 모집 군별 이동이 크게 일어났다. 전체 모집인원은 4,102명이 증가했는데, 주요 15개 대학만 비교해보면 4,132명이 증가했고 특히 고려대, 경희대는 전년도 대비 모집인원이 크게 늘어났다. 모집단위의 군이나 모집인원의 변경은 전년 대비 경쟁률 및 입시 결과에 따른 합격 가능성 예측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단위 군별 이동 및 모집인원의 변화를 잘 살피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라. 2022학년도 정시 분할 모집 대학 수는 전년도와 비슷하다.

2022 vs 2021 분할 모집 대학 수 비교

구분	가	나	다	가/나	가/다	나/다	가/나/다
2022학년도	18개교	22개교	17개교	33개교	19개교	19개교	69개교
2021학년도	22개교	20개교	17개교	33개교	20개교	21개교	64개교

2022학년도 정시 군별 모집 대학 수는 지난해에 비해 가군만 모집하는 대학은 4개교가 줄었고, 나군만 모집하는 대학은 2개교가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모집인원이 줄면서 가, 나, 다군을 모두 모집하는 대학은 5개교 늘었고, 1개군 또는 2개군 분할 모집대학은 모두 감소했다.

마. 정시는 수능 위주 선발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인 84,175명의 90.2%에 해당하는 75,978명을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전체 인원수와 함께 수능 위주 모집 인원이 5,207명 늘었고 비율도 약 1.7% 증가했다.

2022 정시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구분	전형유형	2022학년도		2021학년도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정시	수능 위주	75,978	90.2	70,771	88.5
	실기 위주	7,470	8.9	8,356	10.4
	학생부(교과)	201	0.2	270	0.3
	학생부(종합)	347	0.4	424	0.5
	기타(재외국민)	179	0.2	252	0.3
소계		84,175	100	80,073	100

영역	선택과목 지정 여부	
	지정 과목	해당 대학
국어	지정X	모든 대학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아대, 동의대, 목포대, 부산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원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순천대, 송실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항공대, 한림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홍익대
	확률과 통계	대구한의대, 동의대, 인제대
탐구	과탐 2과목	가천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아대, 부산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대, 송실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우석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대, 한림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홍익대
	사탐 2과목	대구한의대, 인제대

대부분의 대학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은 지정 과목이 없기에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탐구 대신 과학탐구를 응시하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은 선택과목 결정 시 유의해야 하는데, 서울권 주요 대학 대부분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수학 영역은 기하/미적분을, 탐구영역에서는 과학 탐구를 선택할 것을 지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사. 주요 대학별 정시모집 군별 모집인원

대학명	수능			실기/실적		
	가	나	다	가	나	다
건국대	517	718	124	0	0	0
경희대	809	1161	0	163	70	0
고려대	1682	0	0	0	0	0
동국대	643	582	0	0	0	0
서강대	0	696	0	0	0	0
서울대	0	1029	0	0	0	0
서울시립대	76	653	0	57	0	0
성균관대	741	707	0	0	0	0
숙명여대	787	21	0	30	101	0
연세대	1512	0	0	123	0	0
이화여대	206	865	0	0	126	0
중앙대	514	513	506	51	107	0
한국외국어대	327	723	489	0	0	0
한양대	982	297	0	0	96	0
홍익대	86	89	1283	0	4	

정시지원은 수시와 다르게 각 군별로 1개씩 지원하여 최대 3개의 지원이 가능하다. 각 군별의 지원 시기는 겹치지 않고 연속적인 일정으로 짜여 있다. 지원 시기를 놓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시지원 시기에는 지원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는 가/나/다 세 개 군을 모두 포함하여 총 1개의 군에만 있다. 각 군별로 원하는 학교와 학과를 선택할 때는 보통 4가지 유형의 지원 성격으로 분류한다. 지난 입시 결과와 비교하여 본인의 성적보다 높은 학교 또는 학과로 지원하는 상향 지원, 본인의 성적대보다 약간 높은 소신 지원, 본인 성적에 맞는 안정 지원, 본인 성적보다 낮은 곳으로 지원하는 하향 지원이 있다. 각 군별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때, 이를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절히 분배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정시에서 영어의 영향력

영어성적은 정시전형에서 각 대학의 반영 방식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어, 수학, 탐구의 백분위 또는 표준점수를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후 총점에서 영어를 가점 또는 감점하여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는 영어에 비율을 적용하는 것도 아닌 데다 총점에서 작게는 0.5점~2점 정도만을 가감하기 때문에 영어 등급이 한두 등급 낮게 나온다고 해도 총점에 끼치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영어를 가감점으로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 실제 영어에 대한 영향력을 적게 두려고 의도한 경우가 많다.

둘째, 대학 임의로 각 등급에 따른 백분위 환산점수를 만들어서 영어 백분위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다. 전국의 많은 대학이 이 방식을 사용한다. 백분위 환산점수의 등급 간 점수 차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그리고 영어 반영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실제 영어성적이 총점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영어는 원점수 10점 단위의 한 등급으로 구간이 나뉘기 때문에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한 등급만 미끄러지더라도 총점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백분위 환산점수에 의한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 영어성적을 반드시 환산해 보아야 유불리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즉,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 영어가 쉬워졌다거나 영어의 영향력이 작아졌다고 생각하면 위험하다.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의 경우 영어를 2등급 받는 순간 지원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2022학년도 대학별 영어 등급별 환산점(예시)

대학	계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건국대	인문	200	198	196	193	188	183	180	170	160
	자연	200	196	193	188	183	180	170	160	150
경희대	전체	2006	192	178	154	120	80	46	22	0
고려대	전체	0	-1	-3	-5	-7	-9	-11	-13	-15
광운대	전체	200	197	192	184	172	160	148	136	0
국민대	전체	100	98	95	90	85	80	75	70	0
동국대	전체	200	199	197	190	180	140	90	20	0
서강대	전체	100	99	98	97	96	95	94	93	92
서울과기대	전체	135	130	125	115	100	80	60	30	0
서울대	전체	0	-0.5	-1	-1.5	-2	-2.5	-3	-3.5	-4
성균관대	인문	100	97	92	86	75	64	58	53	50
	자연	100	97	92	86	75	64	58	53	50
숙명여대	전체	100	95	85	75	65	55	45	35	25
연세대	전체	100	95	87.5	75	60	40	25	12.5	5
이화여대	전체	100	98	94	88	84	80	76	72	68
중앙대	인문	100	97	93	88	80	72	61	55	50
	자연	100	98	95	92	86	75	64	58	32
한국외대	인문	140	138	134	128	120	110	90	60	0
	자연	105	104.5	103.5	102	100	97.5	94.5	90	0
한양대	인문	100	96	90	82	72	60	46	30	12
	자연	100	96	90	82	72	60	46	30	12
홍익대	전체	200	195	188	179	168	155	140	123	104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여러 직업군에 대한 정보부터 성적 분석, 대입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 21학번(학생부종합전형-네오르네상스전형)

1. 성공적인 고등학생 생활보내기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법학 계열)에 합격한 신입생입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고 능동적인 성격이라 교과 학습 이외의 탐구 활동, 프로젝트 진행 등 교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덕분에 생활기록부에서 전공 적합성과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드러낼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수시 6개의 대학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여러 수시 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을 집중적으로 준비했던 만큼, 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면접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 및 학과 정하기

대부분의 학생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자신의 마음속에 목표 대학을 한 개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3학년이 되어 대학 원서를 쓸 때, 처음의 목표 대학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극소수입니다. 또한 '○○대학교에 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상위권 대학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을 특정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대학이 아닌 '상위권' 대학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강한 동기 부여가 안 될뿐더러 흔히 '성적 맞춰 대학 가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대학을 내 능력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치를 대학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학을 특정해야 하고(한 대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특정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과 역량에 맞춰 고등학교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대학별로 구체적인 인재상은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요구하는 핵심 역량은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보다는 학과/희망 계열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가 소수 학과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해당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 많습니다. 또한 유사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과여도 대학별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 학교를 정할 때는 [희망 계열과 관련 있는 학과 찾기(학과 명칭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커리큘럼까지 확인) - 해당 학과가 존재하는 학교 찾기/목표 대학에 해당 학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체 가능한 학과 찾기]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의 꿈은 국선전담변호사이기 때문에 법학 계열의 학과에 진학해야 했는데 법학과가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생기면서 로스쿨이 개설된 학교에는 법학과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희망 대학들의 커리큘럼을 참고해 법을 배우는 학과를 조사했고 법 관련 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정치·외교학과와 같이 로스쿨 진학에 도움이 되는 학과를 찾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학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자율전공학부(경희대), 융합인재학과(건국대), 글로벌리더학부(성균관대), 법학과(숭실대), 그리고 정치·외교학과(한국외대)에 지원했습니다.

2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노하우

이건 순전히 제 사례일 뿐입니다. 제 사례를 따라 하시지는 마시고, 참고만 하셔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상

수상 개수는 학력상을 포함해 약 30개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사회중정학교였고 이공계열 관련 시상 개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문과계열(장기 프로젝트 형식)의 시상이 많았습니다. 되도록 대회의 내용과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대회에 참가하려고 했고, 그중에서도 철학 논술 대회, 사회탐구프로젝트, 헌법 독후감 대회와 같이 제 진로와 관련된 대회에서는 수상뿐만 아니라 높은 등급의 성적을 내는 것을 목표로 보다 집중해 임했습니다. 대회는 대회 공지가 있고 나서부터 대회 일자가 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시험 기간이나 수행평가 기관과 겹치게 되면 대회에 많은 노력을 쏟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연간 시상 계획을 참고하고 본인이 반드시 참여할 대회를 확인해 대회에서 쓸 주제를 미리 생각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아리 및 봉사

저는 전국청소년정치외교연합(YUPAD: 정치·외교 동아리)에서 3년간 활동했고, 2년 동안 동아리 회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동아리에서는 시사 토론, 모의재판, 논평 작성/신문 스크랩, 모의 유엔 개최 등의 활동을 했고, '전국연합' 동아리라는 특성을 살려 전국 총회에 참석하거나 타 학교 간 논평 교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사'를 동아리 내에서만 다루고 그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내 학생들이 시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에 따라 카드 뉴스 제작 활동, 방송부와 연합해 진행한 교내 팟캐스트를 통해 뉴스를 챙겨볼 시간이 없는 학생들에게 사회 이슈를 전해주는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저는 중창부(반주)와 오케스트라인 자율 동아리 활동도 했습니다. 제 취미가 피아노 연주다 보니 자율 동아리는 순전히 제 행복을 위해서 시작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업에만 열중하는 학생이 아닌 폭넓은 경험과 능동적 참여를 추구하는 대학 입시에서 이 부분이 이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창부와 오케스트라를 통해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봉사의 다양성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봉사 활동은 총 193시간이고,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수업 도우미 활동을 2년간 꾸준히 해왔습니다(*3학년 때는 코로나로 인해 지속적인 봉사 활동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교육 봉사, 학급 봉사(벽화 그리기, 합창 공연, 교내 캠페인 등)와 같은 활동을 해 지속적인 봉사와 단기 프로젝트형 봉사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봉사 활동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학생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의 폭이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저 또한 '법' 관련 봉사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가능한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라는 키워드보단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춰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제 비교과 활동의 첫 번째 핵심은 '교내'입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주변부터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종의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나의 주변'인 학교와 관련된 탐구를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고등학생의 지식 범위 한계상 기존에 존재하는 학술 자료를 뛰어넘는 탐구를 해내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 탐구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통계'는 표본이 많을수록 일반화의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같은 학교 학생 또는 선생님 이상으로 표본을 설정해 1차적 통계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도 교내에 적용시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최상의 효과를 내는 형벌성 교칙 원리 탐구: 법학 고전인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교칙에 적용시켜 우리 학교의 교칙에 얼마나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있는지와 같은 것을 분석한 탐구, '교내의 정치적 무관심 해결 방안: 정치적 무관심의 종류를 조사하고 각 무관심이 교내에서는 어떤 형태로 발현되는지, 각 무관심 별 해결방안을 제시한 탐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전 도서를 교내 혹은 실제 사회와 융합한 탐구를 진행하거나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발전시켜 교내에 적용시키는 탐구를 주로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연속'입니다. 스토리텔링의 핵심이 연관성인 것처럼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적힌 3년간의 활동에는 연속성/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연속성은 '핵심 키워드'와 '발전/심화'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의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장애인 등급제 폐지', 2학년 때 '장애인 의무 고용제', 3학년 때 '장애인 차별금지법', '형사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방안'과 관련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키워드 한 가지를 정해 수평적으로 범위를 넓혀 지속적인 탐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전/심화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자치 관심도 해결 방안', 3학년 때 '학생자치 관심도와 교칙 준수도의 상관관계', '탈정치형 무관심과 교칙 준수도의 상관관계'와 같이 한 탐구에서 들었던 호기심이나, 기존에 진행한 탐구에 존재했던 한계를 또 다른 탐구로 발전시켜 수직적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시의성'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또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등 수준의 지식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학술 자료를 뛰어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의성에 주목했고(기존의 연구 자료가 드물기 때문), 아침 등교 시간마다 뉴스를 보며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문제에 집



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선거제도 개편(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찬반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선거제도'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3학년이 되었을 때는 비로소 실현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져온 여러 문제점에 주목해 저만의 선거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이슈를 깊이 파고들면 시의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뿐더러 기존의 학술자료가 없거나 무척 적기 때문에 나만의 학술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은 '전공 적합성'입니다.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는 그 중요성이 워낙 크기에, 전공 적합성이 없는 생활기록부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자료에 차별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전공과 무관해 보이는 곳에서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일관된 진로를 희망했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은 저에게 큰 강점이었습니다. 전공 적합성을 보다 확연히 드러내고 싶어 거의 모든 과목에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했고 지구과학, 미술, 가정과학과 같이 전공과 무관해 보이는 과목에서도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구과학에서는 '미세먼지의 발원지와 국제법에 따른 책임', 바다가 넓어지면 그 바다의 주인은?: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국제법에 따른 영토 변화와 문제점에 대해 탐구했고, 미술 과목의 영화 패러디 활동에서는 김홍도의 씨름을 정치 분쟁과 정치적 무관심을 주제로 한 패러디 사진 촬영, 가정과학에서는 가정폭력특례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교과 세특을 채웠습니다.

보고서로 작성한 내 아이디어가 실제 상황에 적용되어 실현된다면 그 아이디어가 가지는 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여러 사회 문제를 다룬 연구 자료들도 결국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즉 마지막 핵심은 '실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교내와 관련해 많은 탐구(특히 교내의 정치적 무관심: 학생자치 무관심)를 해왔습니다. 학생자치 무관심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교내 기자단 개설, 학생회 구조 개편, 학생회 청원 시스템 개설' 등을 제시했고, 저는 3학년이 되어 학생회장으로서 제 보고서 내용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활동은 학생회장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회장이 아니라 실장이나 학생회 임원으로서도 가능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실장이라면 여러 사회 현상을 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연결 짓는 탐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학생회 임원이 아니더라도 학교를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면 동아리를 개설하거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자소서를 쓸 때 대체로 학습 경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경험과 깨달음으로부터 새롭게 진행한 탐구에 관해 작성했습니다. 물론 자소서 문항 질문의 핵심을 벗어나선 절대 안 되겠죠. 그러나 핵심에만 충실하다 보면 자칫 진부한 자소서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즉 문항 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모두 이야기하되, 대학이 내게 그 질문을 함으로써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그 부분을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소서 소재를 선정할 때 흔한(?) 에피소드는 최대한 피하세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전 사례 복제를 피하기 위해 다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자기소개서 내용이 상향 평준화 됐고 그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모 대학이 '이제는 자기소개서로 큰 역전을 불러오는 사례는 존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흔한 소재로 흔하지 않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재 자체를 신박한 것으로 선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흔한 에피소드의 예) 조별 과제에 소홀히 참여하는 친구를 설득해 좋은 결과를 냄, 체육대회/축제를 준비하는 와중에 학급 갈등 상황이 발생했고 실장으로서 이를 현명하게 해결함,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해 성적 상향 곡선을 그림(성적 상승의 경험은 정말 독특한 방법이나 에피소드가 있지 않은 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1번은 학습 경험을 쓰는 문항으로, 저는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의 낙선 경험과 사표(죽은 표: 선거에서 당선자의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에 대한 깨달음, 고2 정치와 법 시간에 배운 상대다수대표제의 한계를 연결 지어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와 우리나라에 적합한 선거제도를 개발했습니다. 1년 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2학년 때 우리나라에 적합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던 선거제도가 실제로 시행되었지만 선거제도 개편의 취지를 왜곡하는 변수가 생겼고, 저는 그 문제점에 착안해 기존의 탐구를 발전시켜 저만의 새로운 선거제도를 개발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교내 활동 문항인 2번에는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각각 근대적/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해 진행한 탐구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에 착안한 '최상의 효과를 내는 형벌성 교칙 원리'였습니다. 선



자소서

도 활동을 하면서 불공평한 처벌로 인해 불만을 갖는 학생들, 그로 인해 학생들의 교칙 의식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학교의 교칙이 최형법정주의를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에 대해 발표한 후, 학생회장이 되어 당시에 제시했던 교칙 개정안을 실현한 경험을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홍콩 복면 금지법의 부당성과 복면 금지법 제정 원리 및 위법행위 해당 요건'에 대해 탐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탐구를 진행할 당시에는 홍콩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입법 시도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복면금지법을 근거로 시위대를 과잉 진압했고, 이에 따라 홍콩 시민의 저항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저는 뉴스 기사를 읽으며 홍콩의 복면금지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각국의 복면금지법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국가의 사례를 비교하던 중, 저는 각국 복면금지법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과잉 범죄화'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사실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나 시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복면 착용의 행위는 테러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복면금지법은 범죄 행위 자체가 아닌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처벌하는 법이고, 이러한 법의 특성상 과잉 범죄화의 논란은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했던 것입니다. 저는 복면 금지법이 과잉 범죄화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원리를 생각해내고 싶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배운 위법 행위 해당 요건을 모티브로 '복면금지법 입법 원리와 위법 행위 해당 요건'을 새롭게 개발했고, 이를 자소서 2번의 마지막 소재로 작성했습니다.

3번 문항에는 대부분 봉사 경험을 작성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지적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 봉사 활동 경험과 독서로부터 얻은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 탐구에 대한 내용까지도 작성했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기 전의 저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지적장애인 범죄와 관련된 기사를 접했을 때 비판적인 사고 없이 그 기사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박준영 변호사님의 '지연된 정의'라는 책을 읽게 됐고, 그 책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대부분의 사람이 정신적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사를 하며 지적장애인의 범죄자 이미지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었고, 봉사를 하기 이전의 나 자신이 그 기사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원인이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연된 정의에 언급된 피고인들이 누명을 쓰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들었던 것 또한 사람들의 편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형사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고, 법조인이 가져야 하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 4번은 '정의'를 소재로 서술했습니다. 제 진로는 법조인으로 명확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활동을 법에 맞춰 진행했지만, 법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공리주의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그러한 저의 의견을 여러 활동에 녹여냈습니다. 더불어 공리주의가 아닌 정의란 무엇인지, 또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했던 흔적, 그로부터 내린 나만의 결론, 법조인으로서 궁극적인 꿈은 무엇인지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저는 여러 역량 중 능동성 및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비판적 시각, 법에 대한 이해력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수업이나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호기심이 탐구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주로 작성했습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강점과 희망 진로에 필요한 역량을 잘 파악해 그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소재와 서사를 그려내시길 바랍니다.

3 내신 성적 관리 노하우

1) 수업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수업 필기 열심히 하기와 같은 말은 들어봤어도 수업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수업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개념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업 시간의 집중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은 자신이 듣고 이해하는 데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필기를 대신해준다고 해도, 선생님께서 정리 프린트를 주신다고 해도 수업을 직접 듣는 것의 공백은 채울 수는 없습니다. 또 수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은 출결을 관리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업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박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강관리도 하게 됐고 덕분에 3년 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물론 워든지 과하면 스트레스가 심해지니 의지는 가지되 강박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

이번에는 시험의 관점에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만 시험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 말인즉슨, 시험 내용은 모두 수업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신 시험은 범위가 정해진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지나가듯이 말씀하신 내용까지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미세한 점수 차이와 등급 차를 만듭니다. 여기에 서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필기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이고 자신이 수업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며 자신의 배경지식을 동원해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호기심을 가지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을 정확한 이해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시험이 임박해 개념들이 섞이고 꼬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심지어 저는 시험을 보며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의문이 든 적도 있습니다). 역사, 정치와 법과 같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되는 과목에서도 자세히 파고들면 의문이 드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원리에 대한 호기심을 이과 과목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과목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2) 말하면서 공부하기

"말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설명하듯이 말하며 공부하는 것은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기억에 남게 하는 데 좋습니다. 말하면서 공부하기는 조리 있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연습한다고 해서 어느 순간 눈에 띄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발표나 면접에서 본인의 실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습시간이나 도서관 혹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말하면서 공부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 반드시 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말을 되뇌면서 공부한다면 말하는 것과 같은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3) 교과서 10회독

복습을 하는 방법에는 마인드맵 그리기, 내용을 상기시켜 백지에 정리해보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교과서 10회독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0회독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역사와 같이 암기해야 할 내용이 줄글로 적혀있는 과목을 암기할 때 효과적입니다. 소설이나 수필, 논문 등을 여러 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글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과 깨달음을 가져다줍니다.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읽다 보면 이전에는 없었던 질문 거리가 생기거나 비교과 활동으로 깊이 탐구해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굳이 10회라는 횟수에 얽매이지 마시고 과목별 자신의 이해도와 분량을 확인해 적당한 횟수를 정해서 N회독을 하시길 바랍니다(교과서 앞에 네모 칸을 그린 다음 한 번 읽을 때마다 체크해나가면 더욱 확실한 N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II.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활용법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여러 직업군에 대한 정보부터 성적 분석, 대입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서를 쓰는 기간이 되면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여러 대학교의 모집요강, 지난 입시 결과 통계 등 여러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 학교별로 홈페이지의 구성과 공개 내용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찾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대학명을 검색하면 해당 대학의 여러 입시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자료 조사 과정에서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법을 다루는 학과의 이름이 대학별로 상이했습니다. 어디가 홈페이지의 학과 정보에서는 특정 계열을 검색하면 그와 관련된 다양한 학과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학과의 이름이 여러 가지거나 희망 계열은 있지만 구체적인 희망 진로가 없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의 가장 큰 장점, 바로 대입 수기 열람입니다. 실제로 학생 개개인의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내용, 그 밖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알기 위한 방법은 같은 학교 선배의 기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학교 내에서 같은 학과를 희망하는 선배를 찾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고, 찾는다고 해도 성적대가 비슷하지 않거나 최근 자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볼 수 있는 대입 합격 수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로 비교과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대입정보메거진을 활용했고 그로부터 폭넓고 깊은 탐구 주제를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 보내기”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21학번(학생부종합전형)

안녕하세요. 올해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에 진학한 신입생입니다. 다 큰 성인이 간혹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 내가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면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단 한 번뿐인 고등학교 생활은 미리 겪어볼 수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소중한 성장과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기 전에 항상 후기를 보면서 ‘이 물건을 사도 후회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구매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이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아, 후련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결승선까지 달려봅시다!

I. 나는 뭘 공부하고 싶을까?

사람들은 종종 “야! 공부만 잘하면 나중에 학과를 네가 골라서 갈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내가 뭘 배우고 싶은지, 내가 이를 꿈为实现 위해서 어떤 수업이 필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3년을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의 대학생활은 모 아니면 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전형이든, 본인이 관심 있는 학과가 무엇인지부터 고민하는 것이 대입을 준비하는 첫 단계입니다. 특히나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도 평가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닌, 전공적합성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전공적합성은 하루아침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교과목이랑 연관시켜보거나 동아리 활동 계획하기, 관련 독서 등을 하면서 전공적합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학에 가서 뭘 공부하고 싶은지 모른다면 계속 제자리걸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입을 준비하면서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대부분 ‘대학 타이틀’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학과가 모든 대학에 개설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물론 어느 대학에 가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뭘 공부하고 싶은지 고민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II. 학생부종합전형

먼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흔히 ‘생기부’라고 부르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크게 교과와 비교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까지 모두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쌓아왔던 성적으로만 자신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교생활 태도나 학과에 대한 관심(전공적합성), 인성 등 ‘나’를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3년간 학교생활기록부를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교과, 비교과 순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교과

교과는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이 해당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도 평가기준에 포함된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 교과에 뭘 신경 써도 된다는 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활동이 본인을 평가하는 데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적입니다.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 본인과 원하는 학과가 같은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학생들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교과와 비교과 모두 챙기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원하는 학과와 연관된 활동이 서로 비슷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초등교사를 꿈꾸는 학생들끼리 학교생활기록부를 비교해봤을 때 교육봉사, 교육관련 독서나 강의, 멘토링 활동 등 공통요소가 정말 많았습니다. 모든 학교들은 전교생을 다 케어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학과와 관련된 특별한 활동을 제공해주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과가 비슷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요소는 바로 성적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성적을 단숨에 올리는 것은 더욱 어려워, 상황 그래프를 보이는 성적이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적을 3년간 유지하는 것도 대단하기 때문에 꼭 상황 그래프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나 유지보다 우리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성적 하향입니다. 만약 자신의 성적이 하향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설불리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간기말고사와 수행평가에 집중하며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적 상황과 유지는 흔한 것도, 보통도 아닙니다. 자신의 성적이 하향세를 보일 때 드는 가장 큰 불안감은 대학 입시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바로 ‘나만 성적이 떨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적 하향은 가장 보편적이면서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걱정 중 하나입니다. 저도 2학년 때 앞자리가 바뀔 만큼 성적이 다소 하락해서 누구보다 걱정이 컸던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적이 하향세를 보인다 해도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너무 기죽어 있지 말고, 또 겁내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씩씩하게 성적이 하락한 이유와 어떻게 계획을 세워 공부할지 고민해보며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적이 떨어진 원인을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성적과 관련하여 제가 도움을 받았던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남의 학습법을 따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제가 경험한 것을 참고해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자신만의 학습법을 쉽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① 오늘 최소한으로 공부해야 할 목표 적기

저는 학습 계획 작성도 여러 방법을 시도했었습니다. 공부하기 전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욕심이 많이 나기도 하고, '공스타그램'처럼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자신이 계획한 공부를 실천한 후 사진 찍어 올리는 모습을 보며 '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지'하는 마음에 하루에 하기 버거운 양을 적어놓은 적이 많았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사실 계획대로 못 하면 다음부터는 의욕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본 영상에서 계획표를 미리 세우지 말고 하루가 끝나기 전에 자신이 한 학습량을 적어보자는 방법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리 할 것을 계획하는 것과는 완전 반대 방향이지만, 내가 하루 동안 공부한 양을 냉정하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 할 것은 많은데 미리 써놓지 않으니 뭘 해야 하는지 헤매기도 했고, 한 과목만 오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깨달은 것 중 하나는 계획할 때 너무 욕심 부리기 말기, 그리고 '진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로 계획하기입니다. 당연히 이 방법으로 계획했을 때는 본인의 욕심에 다 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으로만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이 남아야 됩니다. 그때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를 더 해주면서 계획표에 하나씩 추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최소한으로 계획한 것이지만 매일매일 실천했을 때의 기쁨과 계획보다 더 많은 양을 공부했을 때의 뿌듯함이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② 해설지 공부법

해설지 공부법은 국어와 영어, 탐구 과목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해설지에는 문학작품의 배경이나 비문학 지문의 문단별 주제, 영어지문의 요지 및 해설 등 깊게 공부하는 데 도움 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해설지를 사용해서 오지선다형 중 옳은 답을 골라야 하는 문제는 나머지 보기가 왜 틀렸는지 옆에 적는 것이 중요하고, 옳지 않은 답을 골라야 하는 문제는 이 답이 왜 틀렸는지를 적고 나머지 옳은 보기들을 정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했고,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해설지와 함께 공부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몰라도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 때문에 나중에 오류를 범하는 것보다 해설지를 활용해 공부하면서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고, 시험에서 실수도 점차 줄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③ 반복

반복이라는 말을 보고 뭐야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가장 쉬워 보이지만 실천하기 제일 어려운 공부법이라고 생각해요. 천재가 아닌 이상 한 번에 많은 내용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어 지문의 내용이나 수학 개념, 영어 단어 등 한 번에 몰아서 끝낸다고 마음먹지 말고, 적은 양이더라도 꾸준히 눈으로 반복해서 익히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실력은 분명히 오를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반복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내 머릿속에 나만의 도서관을 만들어 지식들을 담아두고, 그때그때 꺼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를 풀 때 관련 내용이 바로바로 생각날 정도입니다. 단순 암기는 수능까지 갖고 가기에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다음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입니다. 세특에 들어가는 내용은 크게 수업 시간 본인의 태도와 수행평가, 해당 과목과 자신의 진로를 연관시킨 활동이 있습니다.

① 수업시간 본인의 태도

수업 시간 본인의 태도는 학생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핵심입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이해가 되었으면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모습,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 자신의 스타일대로 수업에 성실히 임하시면 됩니다.

②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주제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정해진 틀 안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과학 수행평가로 제6의 대멸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멸종된 동물을 사례로 들고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를 서술하시오와 같이 주제와 형식이 모두 정해져 있다면, 수행평가 공지를 받았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당일에 당황하지 않고 잘 볼 수 있게끔 여러 번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틀은 정해졌는데 주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면 자신의 관심 분야 혹은 진로와 관련하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 사회문화 수업에서 연구 보고서 작성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형식은 정해져 있고 주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초등교사의 꿈을 고려해 '청소년의 공감 능력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주제로 잡아 수행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수행평가 공지가 나왔을 때 평가 기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간혹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은 들어도 본인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수행평가를 정확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③ 해당 과목과 자신의 진로를 연관시킨 활동

가장 중요한, 해당 과목과 자신의 진로를 연관시킨 활동은 보통 선생님들께서 어떤 활동을 할 건데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활동을 준비해보고 관심 있는 사람은 지원해서 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영어 선생님께서 TED 강연 영상을 보고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활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많은 영상 중에서도 온라인 교육의 미래와 비판적 사고 방법을 주제로 한 강연 영상을 요약하고 ppt를 만들어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꼭 선생님께서 먼저 활동을 기획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해당 과목과 자신의 진로를 엮어 활동을 기획한 후 아이들에게 발표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자신의 진로와 엮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과목과 자신의 진로를 연관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이제 진짜 제 진로와 연관 지어서 할 활동이 없어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팁을 주자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도서(책 또는 논문)를 많이 하다 보면 소재가 종종 보이기도 하고, 인터넷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기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의 경우 시사를 파악하고 넓은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어서 여러 과목을 자신의 진로와 연관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특히 나중에 대학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자신의 지적탐구력을 돋보이게 답변할 수 있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 비교과

비교과는 대회와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독서가 해당됩니다.



대회

대회는 학교에서 미리 계획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 있거나 자신 있는 대회,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대회를 찾아서 자유롭게 참여하면 됩니다. 무조건 모든 대회에 다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회는 자신이 참여만 했다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관심 있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대회들을 미리 추려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수상을 한다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대학 면접을 볼 때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많은 대회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는 대회는 토론대회입니다. 만약 자신의 영어 성적이 낮다 싶으면 영어와 관련된 대회를 열심히 준비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수학의 성적이 낮아 수학과 관련된 대회도 종종 나갔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대회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동아리

동아리는 크게 창체동아리와 자율동아리로 구분되는데, 창체동아리는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아리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 뒤 자신이 관심 있거나 진로와 연관 있는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면 됩니다. 만약 하고 싶은 동아리가 없다면 용기를 내어 자신이 창체동아리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초등교사가 꿈인데 교육과 관련된 동아리가 없어 2학년 때 '교육학개론'이라는 교육 창체동아리를 개설했습니다. 각자 재학 중인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자신이 개설하고자 하는 동아리를 담당해주실 선생님과 함께할 부원들만 있다면 개설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 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는 원하는 목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보다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3년 동안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과 자율동아리를 함께 하면서 수업실연도 해보고 교육봉사, 온라인클래스를 주제로 한 연구 보고서 작성 등 깊이 있게 탐구해볼 수 있는 활동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자율동아리의 경우 창체동아리보다 더욱 자신의 의지와 적극성, 전공적합성 등을 평가하기 좋기 때문에 기회로 삼아 교과에 얽매이지 않고 깊이 탐구해볼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체동아리와 자율동아리에서 중요한 점은 '이 동아리에서 뭘 했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이런 역할을 했고, 이런 활동을 했다'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

봉사는 활동 시간보다 지속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20시간 채워야 했지만 최근에는 시간 채우기식의 봉사를 지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봉사를 하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교육대학교나 의대, 사회복지학과 등을 희망한다면 특정 분야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교육대학교를 희망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초·중·고 교육봉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교육 봉사는 교육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했더라고요. 이처럼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특정 분야의 봉사활동이 있다면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진로활동

진로활동은 학교에서 여러 분야와 관련된 강연이나 체험활동을 많이 제공해주고,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 '진로pt프로젝트'나 '가배지공' 등 학급활동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강연이나 체험활동, 학급활동 등이 진행될 때 활발하게 참여하고,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점 혹은 뭘 배울 수 있었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파일로 따로 보관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독서입니다. 독서는 모든 활동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에 접목시킨 독서나 대화를 준비하면서 깊이 있게 한 독서, 학교에서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그 분야에 더 관심이 생겨서 한 독서 등 자신의 지적 탐구력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을 읽은 그때 노트나 파일에 책 제목과 글쓴이, 줄거리 요약,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고 나중에 시간이 많을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독서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도 자주 활용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때도 자신의 진로와 연관 지어서 적는다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와 면접을 준비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들 아실 수도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독서가 1, 2학기 나뉘어서 들어갑니다. 따라서 한 학기에 몰아서 읽기보다는 1, 2학기 적절히 배분하여 읽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진로활동에 대해 소개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자신이 수행평가나 선택활동, 대회 등 준비했던 활동들을 학년별로 컴퓨터나 노트북에 파일로 정리해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년 동안 자신이 한 활동은 생각보다 많아서 머리로만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보관하고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할 때 소재를 찾아보기도 쉽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었는지 정리해보는 데 좋습니다! 사실 성적 관리는 누구나 해야 하는 과정이지만 비교과의 경우 '내가 얼마나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물론 무조건 많이 참여한다고 해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두 적히지 않을 수 있고, 성적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어 위험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미리 계획하면서 성적도 관리한다면 비교과는 자신만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Ⅲ. 수능

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 본인이 수시를 선택했다면, 그리고 최저가 없는 대학에 원서를 넣는다면 수능은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 일은 정말 한 치 앞도 몰라요. 이걸 수시를 선택 하느냐 정시를 선택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시와 수능 모두 챙겨야 하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시와 생기부 모두 챙겨야 합니다. 물론 수시만 혹은 정시만 챙기기에 드는 비용도 다 알아야. 저 또한 수시로 대입을 준비했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하고자 자소서와 면접 연습에 수능공부까지 함께 해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차 대학 합격 발표를 할 때와 입시가 모두 끝난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수시와 수능은 병행하는 게 맞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입을 준비하면서 주변에 수시 6광탈을 한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약해 정시를 준비하던 친구가 모의고사는 항상 1등급이었는데, 수능 날 긴장과 불안감으로 예상 등급보다 더 낮게 나와 생각도 못 했던 전문대까지 원서를 넣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던 일들이 제 주변에서 일어나니까 여러분에게는 더욱 병행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수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수시와 수능을 병행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소서 미리미리 써두기입니다. 자소서는 상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합니다. 특히 재수생이 아니라면 3학년 때는 1학기 성적까지만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즉 1, 2학년 때보다 활동 참여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소서를 쓸 때 주요 소재는 1, 2학년 때 활동에서 많이 발굴됩니다.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3학년 때는 1학기 성적까지 평가에 반영돼서 1학기에 성적 올리기에도 바쁠 것입니다. 그러면 자소서는 2학기 때 작성하게 될 텐데, 이때 수능공부와 대학 면접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욱 부족합니다. 자소서는 한 번 쓴다고 완성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수정이 정말 필요 없을 거 같은데도 수정하게 되는 게 자소서입니다. 2학년이 끝나갈 무렵쯤에는 활동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을 테니 활동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미리미리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법

자기소개서는 소재 찾기와 문장의 흐름, 간결성이 중요합니다. 소재 찾기의 경우 가장 이상적인 루트는 '~에 관심이 있는데 1학년 때는 이런 활동을 했고, 2학년 때는 확장해서 이런 활동을 했으며 3학년 와서 이런 활동으로 연결시켰다'입니다. 소재를 찾을 때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1, 2, 3학년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활동이 좋지만,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미리 계산하고 활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해왔던 활동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게 좋을까?'에 집중해서 소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군더더기 없이 딱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결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쓸 때 자신을 어필하고 싶어 활동을 하게 된 배경을 주구장창 쓰는 등 말을 길게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문항에서 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음부터 길게 써야 된다는 생각보다 '~임, '~했음' 식으로 쓴 다음 나중에 살을 조금씩 붙여가며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학사정관이 본인의 자기소개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의 자기소개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꼭 짧은 호흡으로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 가독성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걸 너무 당연하다 싶어서 잘 챙기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가족이나 학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등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들은 작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해도 놓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를 다 쓴 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소리 내어 여러 번 읽어보면서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잘 읽히는지를 파악한 다음 담임 선생님과 진로부장 선생님 혹은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까지 두세 분 정도 찾아가 검토를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노트 필기입니다. 3학년 때 교과서는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입니다. 이 말은 학교 시험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수능 공부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있는 지문만 해도 엄청 많고 길이 또한 길어요. 그래서 국어와 탐구 정도는 노트 필기를 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필기를 할 때 막 정성스럽게 모든 걸 다 적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필기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수능 범위를 다 못 나갈 수도 있어요! 노트 필기를 하는 목적은 국어의 경우 문학작품의 수가 많고 비문학 지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다시 복습할 때 일일이 읽어야 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탐구의 경우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눈에 정리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지문은 혹은 이 개념은 이런 내용이었고, 핵심 내용은 이거다 정도로 구조화하여 필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하기입니다. 수능은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길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새벽 2시에 잠들었습니다. 학교를 가면서 제가 완전 로봇이 된 기분이었다고요. 물론 저도 유튜브 보는 것과 인스타그램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부할 양이 많아서 잠 자는 시간도 부족한데 유튜브나 SNS까지 하니 그 다음날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끝나면 항상 폰을 꺼두고 잤습니다. 불규칙적인 생활은 고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더라도 결승선에 도착할 미래의 나를 위해서 조금씩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IV.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활용법

대학원서는 자신이 넣고 싶은 만큼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서 넣을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입정보포털사이트 '어디가'에서 대학/학과/전형과 대입정보센터, 성적분석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학과/전형에서 '대학정보'에 들어가면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 이름을 검색해 모집인원과 전형평가기준, 작년 경쟁률 등 그 대학의 여러 정보들을 세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모집요강 다운로드'를 주로 이용했었는데요.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따로 들어가서 찾지 않아도 3년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교육대학교를 희망하고 있다면 이 기능을 활용하여 꼭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다운받아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에는 시사관련 문제와 함께 예시 답안도 나와 있어 면접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이 배우고 싶은 학과가 어느 대학교에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학교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학과만 결정했다면, 대학/학과/전형에서 '학과정보'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과관련 키워드에 자신이 원하는 학과 이름을 검색해 그 학과가 있는 대학교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꼭 보시고 마음에 드는 학교들을 추린 다음 '비교분석' 기능을 활용하면 최대 3개의 대학교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정보와 전형정보, 전형 평가기준, 대입 특징 총 4가지 측면을 비교해볼 수 있어 대학교를 추려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입정보센터에서는 대입제도안내와 대입전략자료실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특히 대입 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뀌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대입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대입전략자료실에 들어가면 자기소개서 공통양식 다운 등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골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적분석 기능입니다. 대학마다 성적에 반영되는 교과목의 종류나 학년별 반영 비율 등 내신 성적 반영에 있어서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성적분석 기능에 들어가 1학년 1학기부터 교과목, 석차등급, 원점수 등 차례대로 입력한다면 원하는 대학에서의 본인의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3년이라는 긴 루트를 달리다 보면 지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나에게 선물을 주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 나를 위해 힘써주시는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나와 같이 걸어가는 친구들을 보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놓인 학생들이라면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 고등학교 3년 정말 알차게 보내세요. 이제 막 고등학교에 적응되어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은 지금까지 정말 잘 해왔고, 더욱 빛날 그 날을 위해 마지막 결승선까지 최선을 다하며 학교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